

가정 예배 모범

- 2020_10_04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0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의 근심에서 건지시고, 온전히 주만 신뢰하며 주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가 일하시네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고린도후서 7:2-16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바울이 마음에 위로를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6절)?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가 돌아올 때 까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던 (8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환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바울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애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성하는 모습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인들을 되찾는 기쁨과 사도직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근심은 어떻게 다릅니까(10절)?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잠시동안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함으로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심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근심하며 회개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한 후에 근심하며 통곡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사함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근심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파멸에 이르는 세상이 주는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함으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